

**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탱화·법종 전시관  
 전화:02-735-1045/팩스:02-735-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창간 2538년(서기 1994년) 12월 21일 수요일 (주간)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학·현대화·세계화

**금주익법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은혜의 밤같이 아득하여라 (법구경)

**법회 안내**

봉인점사 (02)462-133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락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부처님 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직장인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육바라밀회 매일 초 4일(음)  
 안포의 봉사  
 무학어고불교반 토 오후2시  
 광주 관음사 (062)223-7666

가족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  
 가락법회 매주 목 오후3시  
 거사법회 매주 일 오후6시30분  
 장년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학원선원 (02)3442-4781

관음기도법회 매일 24일(음)  
 불교교리강좌 매주 화·목·일  
 마하선원 (02)952-0666

장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마하불교학교 월·화 오전11시  
 정법사 (02)762-385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상봉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영희사 (02)444-432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상봉법회 매주 일 오후3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포항 대성사 (052)347-7563

거사법회 매일 16일 오후7시  
 장년법회 1,3주 수 오후7시30분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산정단법회 매일 29일 오후1시  
 산정기도법회 매일 초하루  
 성남 원광암 (0342)753-3090

꽃불기도법회 매일 오전10시  
 열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비파법회 매일 8일 오전10시

이날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날입니다. 법회안 내를 관하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 부처님 국민학교 세운다

주부모임 '도솔회' 서울에 설립 발원  
 "새싹 불심에 자부심을" ... 기금조성중

"불교국민학교를 세우자."  
 아이들이 불교이념에 따라  
 안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사립 불교국민학교를 설  
 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불자  
 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  
 한 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민학생을 둔 가정주부들의  
 모임인 도솔회(회장 이정희)  
 로, 인력성취를 위한 법회를  
 운영하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  
 다.

지난해 10월, 5명의 불자가  
 불교국교 설립을 발원한 도솔  
 회는 금년 4월16일 창립과 함  
 게 현재 1백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솔회가 세우고자 하는 불  
 교국교는 서울 중심지에 위치  
 한 지하 1화급 이상의 사립  
 학교로 5년내에 설립, 성파에 따  
 라 지양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솔회 이신숙(불광유치원  
 원장)회장은 "불교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타  
 종교어린이와 종교적 갈등을  
 호소하는 일이 없다"라며 "종  
 교의 편협성이 불교 이념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불자주부들이 앞장  
 서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  
 립국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자  
 리한 은석국민학교(종교학원)  
 가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종립  
 학교인 반면 개신교는 서울에  
 만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지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용지와 수익금 문제 때문  
 이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상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따르면 부지는  
 학교용지 최소면적 4천6백㎡(1  
 천3백91평), 체육장 기준면적  
 3천㎡(9백7평) 등 2천2백88평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립국교 담당자들은  
 "국민학교는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육상비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며 "진정한 육상사업을 위  
 해 지속적인 운영자금을 확보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도솔회 이정희 회장은 "불교  
 국민학교 설립은 대항사로  
 뜻있는 사찰이나 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도솔회가  
 모태가 되어 불교국교 설립이  
 교계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  
 랐다"고 말했다.

한편 도솔회는 매주 넷째 수  
 요일 서울 약수원에서 법회  
 를 보고 있으며 서울시대 소재  
 소아과 병원에 어린이 불자를  
 보급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준영 기자)



**사랑의 대행진... 따뜻한 세민** 지난 9일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사랑의 대행진 개장식에는 심중스님 등 각 종교지도자, 김영애씨 등 인가연예인, 심복 보육원 어린이들이 이웃사랑 모금 대행진을 펼쳤다.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는 청소년 가정, 복지시설아동, 무의탁노인을 위한 사랑의 대행진운동을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사진: 박재현 기자>

**목어**

불교방송이 또 20곡의 새 찬  
 불가를 탄생시켰다. 지난 12일  
 '14 음악공양의 밤'(국립극장)  
 에서 이들 새 찬불가를 선보임  
 으로써 불교방송이 만든 새 찬  
 불가는 모두 8곡이 됐다.  
 불교방송이 찬불가 1백곡 제  
 작 보급 5개년 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 아무 규정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70년  
 가까이 제작돼 온 찬불가의 질  
 들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고려에 준거한 가사,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면서도  
 불교적 특색과 음색을 살려 낼  
 수 있는 선율을 원칙으로 삼아  
 귀와 예매·찬탄·공양법  
 회의식 순서와 절가에 따라 두  
 루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배  
 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발표돼서 애용되고 있  
 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  
 님은 아이에 계실까 같은 곡은  
 그 곡명만으로도 올바른 신념

을 높고 부르지 않으면 안 만  
 든 것과 다름없다. 아니 만드  
 리 예는 수고와 결실을 생각하  
 면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다.  
 이제 불교방송은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마련해 새 찬불가  
 부르기에 주려해야겠다. 그리고  
 새 찬불가 발표에 나섰던 합창  
 단들도 불교방송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라도 찬불가 부르기  
 운동에 나선다면 부처님을 예  
 배라 부처님 오신날' 등 좋  
 은 곡이 여러 곡 나왔다.  
 "백을 찾아 놓고도 잊지 않  
 면 소중 안한 것과 같다"는 어  
 느 스님의 말씀처럼 찬불가를 만

들어 놓고 부르지 않으면 안 만  
 든 것과 다름없다. 아니 만드  
 리 예는 수고와 결비를 생각하  
 면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다.  
 이제 불교방송은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마련해 새 찬불가  
 부르기에 주려해야겠다. 그리고  
 새 찬불가 발표에 나섰던 합창  
 단들도 불교방송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라도 찬불가 부르기  
 운동에 나선다면 부처님을 예  
 배라 부처님 오신날' 등 좋  
 은 곡이 여러 곡 나왔다.  
 "백을 찾아 놓고도 잊지 않  
 면 소중 안한 것과 같다"는 어  
 느 스님의 말씀처럼 찬불가를 만

**'새 찬불가'를 부르자**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연꽃마을 유공자 시상·사례발표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  
 장 박현)은 이날 오후 2  
 시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제  
 1회 전국 연꽃마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용인양로원, 노인무료병원  
 운영 및 노인문제연구, 상담사  
 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연꽃마을은 자원봉사자들  
 을 초청,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  
 이는 계기로 대회를 마련한다.  
 대회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  
 남궁달씨(72세,서울 강남구)에  
 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15명  
 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이어  
 불교방송상을 수상하게 되는  
 '사랑의 공간 모임' 이은중 회  
 장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가  
 있게 된다.  
 2부에서는 사물놀이, 승무공  
 연 및 자원봉사단체별 경기자  
 람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꽃마을 이사장 박현스님은  
 행사와 관련해 "연꽃마을이 그  
 동안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큰  
 무리없이 원만히 운영해 올수  
 있음은 불과 마음을 바쳐 뒤에  
 서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  
 원봉사회의 조직과 체계를 갖  
 쳐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배출  
 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생활  
 화 하도록 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대회 취지를 밝  
 혀했다.

**불우이웃에 성금물결**

각종단 단체 가스폭발이재민·모자세대 등에  
 연장을 맞아 종단과 각 단체  
 가 불우이웃에 성금을 전달,  
 훈훈한 세미를 만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0일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고 성금 1천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이어 앞서 월주스님  
 은 7일 아련동 지하가스저장소  
 폭발사고 이재민 숙소를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박  
 서봉)도 지난 9일 아련동 지하  
 가스저장소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방문하고 성  
 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한 예초스님(태  
 고종 부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원인규명과 원상복구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8일 봉행된 '국가재난소  
 멸기원 및 희생자 친족구제'에  
 참여한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모금된 것이다.  
 영륜 남편을 잃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정을 이끌고 있는  
 '영세모자세대'에게 1천5백만  
 원의 성금이 전달된다.  
 마산·장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민지당 경남도지부대강당에서  
 제5회 영세모자세대 위안법회  
 를 봉행, 성금을 전달한다.  
 생활이 어려운 모자세대가정  
 에 훈훈한 부처님의 자비를 전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에  
 는 마산시의 환원사, 군에서  
 추천한 모자세대 50세대가 초  
 청된다. 이들 모자세대에는 거  
 울동안의 생활비로 각각 30만  
 원씩이 전달된다. 이번 성금은  
 마·삼 불교연합회 소속 40여  
 사찰이 모금한 것이다.

- 향토사학자 내고장 역사 밝힌다 6만
-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 활짝 14만
- 핸들볼심 전국포교망 개통 15만

# 의정부용현동건영아파트분양

교통·환경·건설회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주거공간!**

- 교통환경** 서울보다 서울이 더 가깝다.  
 동부고속도로로 서울 동북부지역까지 5분대,  
 구리·판교로 연결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관통,  
 아파트단지 뒤로 지하철 7호선 통과예정.
- 자연환경** 도봉산·수락산과 함께 산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도봉산과 수락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해 쾌적한 삶을 보장합니다.
- 생활환경** 대규모단지라 문화시설이 풍부하다.  
 신도시 못지않은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교육, 문화, 쇼핑,  
 레저 시설이 완비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명성의 건영** 앞선 기술로 선진주거문화를 창조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높은 청약율로 확인된 명성의 건영이  
 앞선기술과 노하우로 최선의 시설을 갖춘 첨단아파트를  
 건설합니다.



**분양규모**

평형	세대수	평형	세대수
23	372	28	318
33	192	43	48

총 930세대 (9개동)

**분양안내**

- 의정부주택전시관 : (0351)876-9470~3
- 건영종합주택전시관 : (02)594-6100~7
- 건영명 : (02)369-7326-7
- 건영건설 : (02)528-0673, 0675

주택전시관 및 현장위치도

**株式会社 建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기계회관

**주식회사 건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7 일출빌딩